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진교육	면담자	김용경		
면담장소	인일조각 사업장	면담지원	허은영		
면담 일시	2022년 8월 25일	회차	1	시간	2시간 24분 28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590				
구술 개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영특했고, 그림을 잘 그렸음. 고향 선배가 조각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 기술을 배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에 내려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정착함. 공예센터, 공예 협회를 만들어 고문을 맡아 배다리 목공 거리 형성에 일조함. 궁금하면 뭐든지 파고드는 성격으로 목공 작품에 열정이 있음.				
주요 색인어	어린시절, JC 생활, 오유지족, 단순하게, 재미, 감사, 서각, 융통성, 조각, 노사 봉기, 해고, 광주, 공예품, 인천, 재고 정리, 배다리, 목공 거리, 지원, 교육, 자재 수급, 수입, 수작업, 컴퓨터, 글씨, 손, 사무실, 집, 차, 언론, 무에서 유, 정열, 작품, 노트, 간판, 소비 문화, 침체, 유지, 수작업, 가업, 집성,나왕, 칼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인천 정착과 단체활동 시절			00:00:01 ~00:03:18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1970년대 초, 재고 정리를 위해 인천으로 와서 정착하게 됨. - 어린시절, 공부도 잘하고 영특했음. - 인천에 와서 사업, 사회활동, JC 생활을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함.					
2. 진교육 장인의 삶의 신조와 철학					
- ‘단순하게 살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삶의 신조를 갖고 있음.					
3. 진교육 장인의 학창시절과 현재 건강상태			00:06:45 ~00:12:00		
- 부족함 없고 재밌는 젊은 시절을 보냈음. - 목, 허리 수술을 해 보행이 불편함.					
4.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			00:12:20 ~00:20:16		
- 우연히 곡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아내를 알게 됨. 혼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결혼함. - 1남 2녀를 가졌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김.					
5. 구술자의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 모습과 조각장인의 삶의 애환			00:20:20 ~00:23:50		
-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을 지지함. - 정확한 걸 좋아하는 성격에 투자할 만한 돈이 있어도 하지 않음. - 이 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전수시키지 않음.					
6. 조각 장인의 서각 특징과 인생 진면목			00:24:04		

- 작업과정이 취미 생활로 하면 재밌는데 사업으로 하게 되면 힘들. -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어설프게 작품을 내고 싶지 않음. 그런면에서 융통성이 없음. -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떨쳐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없음. -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늘 인정을 해주자.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00:30:04	
7. 목공을 시작하게 된 동기 - 그림을 잘 그렸음. - 고향 선배가 조각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만남. - 당시에는 특별한 계획도 없어서 당장 의식주를 해결해야 해서 머물렀던 것이 기술이 되어 버림. - 공장에서 일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서 노사 불기를 함. - 광주로 내려가 벽걸이 공예품 조각 만드는 것을 배움. -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시작함. - 재고를 판매하러 인천으로 옴. - 안토니 공회사 사장을 만나 거기 머무름. - 가구 공장 조각 책임자가 됨. - 이후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함.	00:30:30 ~00:46:19	
8. 목공 장인의 정착과 배다리 목공 거리 형성 - 배다리에 40평 되는 가게에 처음 정착. 종업원도 많았음. - 결혼 후 도원동에 정착 - 공예센터를 짓고, 공예 협회를 만들어 고문을 맡아 남구청에서 지원받음. - 목 디스크가 심해져 아프기 시작함. - 평생학습 교육 기능사 강사로 서각 분야를 맡아 가르침. -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빠졌음.	00:46:39 ~01:04:24	
9. 목공 자재 수급과 기억에 남는 작품 -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나무를 제재업에서 사서 씀. - 목간판은 거의 수작업으로 이뤄지는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듦. - 컴퓨터로 글씨를 만들어도 손으로 글씨의 40% 이상 고침.	01:04:24 ~01:18:16	
10. 작업장은 목공박물관 같지만 집은 최신식 - 작업장에 지금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박물관 같다고 함. - 집, 차 비싸고 좋은 것들임.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삶. - 도와달라는 얘기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	01:15:20 ~01:26:00	

11. IMF에도 탄탄한 목공활동과 목공장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		
- imf 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쓰고 살았음. - 영업은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와서 주문받음. - 엠비엔, 서민갑부의 취재 거절, 인터넷 신문사 박영희 기자님의 간곡한 부탁에 취재 응함. - 그 후에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 옴.	01:26:11 ~01:32:59	
12. 진교욱 장인이 말하는 조각 공예의 매력과 열정		
- 수많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함. - 조각을 하다 보면 관찰력이 많이 늘어남. - 컴퓨터로 글씨 도면 만드는 것 아주 잘함. - 궁금하면 뭐든지 파고들.	01:33:16 ~01:39:34	
13. 목공 작품에 대한 열정과 인생 달인 이야기		
- 모든 작품이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감. - 아들에게 컴퓨터, 핸드폰 기능, usb사용법 등을 메모해가며 배움. - 도시와 문명의 발전으로 일이 줄어 연속성은 없어도 간간이 오는 고객이 있음. - 집사람을 위한 탁자를 만들고 있음. - 사람이 살면서 '새옹지마'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본인한테 좋을 것 같음.	01:39:48 ~01:58:12	
14. 구슬자가 말하는 목공 전승 방안		
- 소비 문화가 바뀌어야 함. - 후계자가 없음. - 복고풍 유행이 돌아 송의동 목공예 마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 현재 이 마을에는 가업을 이어가는 업체는 별로 없음. - 이 일이 보람있음. - 70살이 넘으니까 힘이 없어짐.	01:58:24 ~02:12:37	
15. 목공인의 손 촬영과 면담 마무리		
- 주로 나왕을 이용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품으로 집성목을 이용함. - 조각도를 늘 직접 갈아서 씀.	02:12:39 ~02:24:28	